



각 보고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보도 자료

박람회에서 가입하는 보험, 내게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금융감독원 2025.08.26.

육아·결혼·반려동물 등 박람회에 방문하였다가 현장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박람회에 방문하여 '암행 기동점검'을 하였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박람회 현장 보험상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금융감독원 2025.08.27.

'25년 상반기 보험회사(생보사22개, 손보사31개) 당기순이익은 7조 9,75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 4,121억원(Δ 15.0%) 감소. (생보) 3조 3,34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116억원(Δ 8.5%) 감소. 손실부담비용 증가 등으로 보험손익이 악화(Δ 3,846억원)되었으며, 투자손익은 유사(+73억원)한 수준...

금감원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2025.08.31.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업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자의 수급권 침해 사례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45개사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위법 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보험회사 CEO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 2025.09.01.

"25.9.1.(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생,손보험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험업계가 마주한 현안과 보험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보험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였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산업이 기업 성장과 사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기...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현황 및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 2025.09.02.

금융당국 및 금융권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손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

제공, 캠페인 등 지속 추진. 그러나, 아직도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은 약 18.4조원으로 보다 많은 숨은 금융자산이 금융소비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2025.09.04.

라임, 옵티머스, ELS 등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소홀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손실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하자 있는 상품임에도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설계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대규모 분쟁 등으로...

2025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

금융감독원 2025.09.07.

(원수보험료) '25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원수보험료)은 10조2,115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 5,141억원) 대비 3,026억원(2.9%↓) 감소. (실적지표) 사업비율(16.4%)은 전년 동기와 동일하나, 손해율(83.3%, 3.1%p↑) 악화로 합산비율(99.7%, 3.1%p↑)은 손익분기점에 근접. (총손익) '25년...

진료비 쪼개기, 피부미용 등의 허위치료 둔갑 등 실손보험 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2025.09.08.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비 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실손보험과 관련된 허위,과장청구 등 보험사기가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보험업권 상생기금(300억원)”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

금융위원회 2025.08.26.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25.8.26일(화)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하였다. 오늘 자리는 보험업권이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사적 사회안전망...

금융당국, MG손보 보험계약을 예별손보(가교보험사)로 이전 - 금융위, MG손보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정지...

금융위원회 2025.09.03.

금융위원회는 '25.9.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

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의약계, 보험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

금융위원회 2025.09.05.

'25.9.5일, 금융위원회는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회의체인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이하 "실손전산운영위")'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실손전산운영위 운영규정 등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25.10.25일 2단계(의원·약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 의료비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2025.08.27.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2024.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보건복지부 2025.08.28.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목)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병무청 데이터와 보건 의료 데이터를 연계하여 청년층 건강 연구에 활용한다

보건복지부 2025.09.01.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보건 의료 분야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보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병무청이 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참여하면서 보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총 10개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게 된다. 연계 데이터는 가명처리...

"내가 받을 비급여 진료 가격,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2025.09.03.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9월 3일(수)에 의료기관 별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2025.09.04.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 (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하였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입법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5.09.02.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23.10.)에서 노인 인구 증가로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보다 빨라 2022년 3.4조 원 규모의 누적준비금이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 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달리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2025.09.04.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단기간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수급권 보장이 필요하며, 일부 사용자가 퇴직급여 회피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2025.09.05.

2025년 6월 기준 전기차 등록대수는 77만5천 대로 2019년 9만 대 대비 약 8.6배 증가하며 친환경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사용후 배터리의 잔존성능 평가 및 안전관리 제도가 부재해 재활용·재사용 산업 육성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배터리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